

즉각적인 기부를 통한 위대한 자선의 중요한 의미.

오늘 입법자이며 축복의 공여자인 아버지는 지극히 사랑하면서 봉사할 줄 아는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 사방의 강력한 자녀들은 그들 사랑의 특질로 인해서 아버지와 가깝다. 사랑의 관계와 지각의 명료함과 깨끗함으로 그들 모두 가까이에서 아버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들은 각자 제3안으로, 즉 신성함으로 지각의 TV에 비친, 멀리 떨어진 곳의 장면들을 두 눈으로 아주 뚜렷하게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없어질 TV에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는 모든 이가 다 그것을 들어놓는다.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때에 자녀들 역시 각자 의식의 스위치를 켜고 앉아있다. TV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곳의 장면들을 가깝게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 모두를 보며 밥다다는 무척 기쁘다. 동시에 바바는 2중의 집회를 보고 있다.

오늘 아버지 브라마는 서틀 리전에서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그는 자녀들이 브라민의 생을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자녀의 결과를 보며 그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에, 즉 각자의 완성단계에 도달하려고 어떤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전진하고 있지만,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는 월 보았겠느냐? 선택된 이들 중에서도 오직 한 손으로 끝을 만큼 적은 수만이 빠른 속도로 항상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녀들의 속도를 보면서 아버지 브라마는 한 가지 질문을, “지식으로 충만하면서도, 다시 말해 시간의 세 측면을 알면서, 또 노력과 보상을 알고, 방법과 성공을 알면서도 왜 너희들은 여전히 항상 빠른 속도를 지속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가 받은 답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들은 이유를 안다, 너희는 해결책을 위한 방법을 아는데, 그러면서도 이유를 해결책으로 바꿀 수는 없다.

아버지는 웃음을 띠고 아버지 브라마에게, “아주 오래되고 끈질긴 습관을 가진 자녀들의 수가 많다” 라고 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즉각적인 결실을, 즉 신선한 과일을 주지만, 습관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신선한 과일이 시든 뒤에야 그것을 받는다.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나는 1등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염주에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너희들은 즉각적인 결실을 미래의 과일로 만든다.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말은 그것이 미래의 과일이라는 뜻이다. 생각하고 즉시 그것을 행하고 즉각적인 결실을 따먹어라. 자아에 대해서든 봉사에 대해서든 너희는 즉각적인 결실도, 자양분 많은 봉사의 열매도 거의 따먹지 못한다. 너희는 무엇에서 에너지를 받느냐, 신선한 과일에서냐, 말라버린 과일에서냐? 일부 어떤 이들은 뭔가를 먹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가졌지만 계속 그 일을 미루는 나머지 신선한 과일이 이렇게 말라버리게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너희들은, “만일 이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할 게요”라고 말한다. 너희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한다. 너희는 뭔가를 생각하고,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행한다.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는 심지어 신선한 지시를 말라버린 (오래된) 것으로 만든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결과를 별로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어째서냐? 시간 간격이 있었던 탓에, 시간이 흐르는 데 따라 선 (행운의 선)이 변했기 때문이다. 행운의 선은 뭐든 시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이야기된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달라지면 분위기, 태도, 파동이 다 바뀐다. 이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부가 위대한 자선이다”라는 말이 기억된다. 어떤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받자마자 그 즉시 그 열의 그대로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너희는 신선하고 자양분 많은

과일을 받고 그것을 취함으로써 너희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영혼이 되어 빠른 속도로 계속 전진한다. 너희 모두 과일을 먹지만, 그러나 너희가 어떤 종류의 과일을 먹는지 체크해라.

아버지 브라마는 신선한 과일을 줌으로써 자녀인 너희 모두를 강력한 영혼들로 만들고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생각도 역시 너희들에게 준다. 아버지 브라마의 이 생각을 한결같이 의식하며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모든 행위에 대한 신선한 결실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어떤 유형의 나약함이나 질병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는 미소짓고 있었다. 세상의 의사들은 현재 어떻게 충고하느냐? 신선한 상태로 모든 것을 드세요. 음식을 태우거나 구워서 들지 마십시오. 변형시켜서 드시지 말고 원래 모양대로 드세요, 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도 역시 자녀들에게, “너희가 때에 따라서 어떤 슈리마트를 어떤 형태로 받든, 그것을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에 옮겨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아버지 브라마와 같을 것이다, 즉 즉각적인 기부가가 됨으로써 위대하고 자비로운 영혼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는 1등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었다. 아버지 브라마와 세계의 어머니는 첫 번째 왕국에 대한 권리를 차지했다. 너희는 그 두 영혼에서 어떤 특질을 보았느냐? 그들은 뭔가를 생각했고 즉시 그것을 실천했다. 그는 결코, “이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특질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르는 위대하고 자비로운 영혼들은 그 자선의 고귀한 열매를 먹고 있으며 변함없이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꿈이나 생각에조차 아주 조그만 나약함도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 손으로 꿈꿀 수 가운데서도 극소수뿐이다.

아버지 브라마는 물질세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형태로 부양해주는 배역을 연기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형태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가졌다.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면 너희는 그들의 약점이 마치 너희 자신의 약점인 듯이 느낀다. 자녀인 너희들의 이 약점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보면서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는 한결같이 강력해지고 변함없이 집중적인 노력가가 되어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에 머물며, 거듭해서 자꾸만 힘들게 애써야 하는 데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아버지 브라마가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느냐? 오직 자녀들만 아버지 브라마의 눈 안에 합쳐져 있다. 너희는 아버지 브라마의 특별한 언어와, 그가 뭐라고 말하곤 했는지 아느냐? 그는 항상 “내 아이들, 내 아이들!” 이라고 거듭 되풀이하곤 했었다. 아버지는 미소 짓는다. 너희는 브라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성이 브라마 쿠마르, 브라마 쿠마리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너희가 쉬브 쿠마르, 쉬브 쿠마리라고는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함께 가야 할 이는 브라마다. 너희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과 형태로 브라마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머문다. 너희는 브라마의 입으로 태어난 자손들이다. 아버지는 어쨌든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럼에도 육신으로는 그것이 브라마의 역할이다. 앗차. 바바가 나중에 다른 때 너희에게 더 많이 얘기해주겠다.

이 그룹에는 세 장소에서 특별한 강들이 왔다. 2종의 외국인들은 그들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은밀한 갠지스강들이다. 지금 특별회의가 델리, 카르나타카, 마하라시트라 등 세 군데 강과 함께 열리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서 특별 보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이들도 있다. 그들의 순서가 되어서 온 자들은 물론 권리를 차지하지만, 그러나 심지어 2종의 외국인들도 달려와서 자기들의 권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여기에 도착했다. 그러니 그들도 역시 사랑 받지 않겠느냐? 2종의 외국인들 역시 특별상여금으로 주는 보물을 받고 있다. 그들은 그러다 자기들 차례의 보물들을 받을 것이다. 각 장소마다 고유한 그 나름의 특질이 있기 때문에 밥다다는 온 사방에서 온 모든 자녀들을 사랑한다. 델리는 봉사의 씨앗의 장소이며, 카르나타카와 마하라시트라

나무의 확장이다. 씨앗은 땅에 파묻혀 있는 반면 나무의 확장은 아주 크므로 델리는 씨앗이다. 마지막에는 소리가 씨앗인 땅 전체에 퍼질 것이다. 하지만 카르나타카, 마하라시트라, 구자라트에는 특별한 확장이 있다. 확장은 나무의 아름다움이다. 카르나타카와 마하라시트라에서의 봉사의 확장으로 인해서 브라민 나무에 아름다움이 있다. 나무는 치장되고 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그들은 경비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로는 브라민들의 수에 대해서 묻는다. 따라서 숫자 면에서 보면 마하라시트라와 카르나타카가 브라민 가족의 장식이다. 씨앗에는 그것만의 고유한 특질이 있다. 만일 씨앗이 없다면 나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씨앗은 현재 약간 은밀하다. 나무의 확장이 더 크다. 델리에서 너희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면 봉사의 기반이 없을 것이다. 어디서든 봉사해 달라는 초대와 첫 번째로 받고 수락한 것, 이 모든 것이 델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봉사의 장소가 되었고 또 그것은 왕국의 장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브라민들이 첫 번째로 받을 내딛은 그곳은 순례지가 되었고 또 그것은 왕국의 장소도 될 것이다. 해외에서도 그 땅에 대한 칭송이 대단하다. 외국에서 울리는 계시의 복소리가 이 땅에 도달할 것이다. 외국의 땅이 아니었다면 계시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유로 외국도 역시 그들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바라트의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의 소리가 나올 장소는 외국 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외국들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어쨌든 원래 이 나라에 속했었다. 그러나 단지 명목상으로만 외국에 거주하는 고귀한 영혼들이 참으로 큰 열의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 역시 더 큰 열의를 가진다. 이것 역시 은밀한 봉사에 대한 그들의 배역이다. 그러므로 각 장소마다 그것만의 고유한 특질이 있다. 앗차.

즉각적으로 기부해주는 위대하고 자비로운 영혼들에게, 생각하고 행하는 데서 변함없이 집중적인 노력가인 자들에게, 매 1초1초마다 모든 생각을 통해서 자양분 많은 봉사의 결실을 먹는 자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르는 그렇게 한결같이 강력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브라마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에게, 이 나라와 외국의 강력한 자녀들 모두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비야트 밥다다가 세바다리들을 만나심.

봉사하는 자들은 그 결실을 먹는다. 열매를 먹는 자들은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너희는 말라버린 과일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갓 딴 과일을 먹는 자들이다. 봉사자들은 행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참으로 대단한 행운아들이다! 신봉자들은 기념물의 형상들 앞에 가고 또 봉사를 한다. 그들은 봉사를 큰 자선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봉사하느냐? 살아있는 위대한 순례지에서 한다. 그 사람들은 그저 순례를 가서 순례여행을 하고 돌아올 따름이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위대한 영혼들로 기억된다. 너희는 위대한 순례지에서 봉사해서 엄청난 행운아가 된다. 봉사하느라 늘 바쁘게 지내는 자들에게는 마या가 올 수 없다. “봉사자들”이란 마음을 통해서 봉사하고 또 몸으로도 역시 봉사하며 바쁘게 지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만일 몸과 더불어 마음도 역시 바쁜 상태로 머문다면 마या는 오지 못할 것이다. 몸으로 물리적으로 봉사하고, 분위기와 주변 환경을 강력하게 만드는 봉사를 하는 데는 너희 마음을 사용해라. 하나로만 하지 말고 2중으로 봉사해라. 2중의 봉사자인 자들은 또 성취도 그만큼 가진다. 마음도 유익을 얻고 몸도 유익을 얻고 너희는 부를 많이 받을 것이다. 지금 이때에도 참된 봉사자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최소한 차파티 2장은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 모두 봉사라는 복권에서 각자의 등수를 차지했느냐?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므로 너희는 언제 어디를 가든 항상 이 행복을 간직해라. 행복해하며 춤을 추면서 봉사의 이 역할을 계속해라. 앗차.

질 문 :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합류시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합류시대만의 특별함은 무엇이나?

대 답 : 모든 이가 다 “나의 바바!”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것은 오직 합류시대에 뿐이다. 모든 이가 다 한 분에게 “나의 바바!”라 한다.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권리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너희들 각자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속한다는 측면에서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경험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오직 합류시대에 뿐이다. “나의 바바!”라고 말할 때 너희는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속한다. 그것은 한정된 “나의 것”이 아니라 무한한 “나의 것”이다. 그러한즉 “나의 것”이라는 무한한 의식의 행복을 지속해라.

질 문 : 가까운 영혼을 나타내는 주된 표시는 무엇이나?

대 답 : 가까운 영혼들은 모든 생각, 말, 행위에서 항상 아버지와 대등하다. 서로 가까운 자들은 틀림없이 서로 같을 것이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영혼들은 단지 조금만 받을 것이다. 가까운 영혼들은 각자의 권리를 온전히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생각과 말은 뭐든 곧 너희들의 생각과 말이며, 이를 두고 가깝다고 한다. 앗차.

질 문 : 너희의 시간이 허비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너희는 끊임없이 어떤 의식을 유지해야 하느냐?

대 답 : 지금 이것이 합류시대의 때라는 것과 너희가 아주 높은 복권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지내라. 아버지는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신인들로 만들고 있다. 이 의식을 가진 자들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식이 너희들의 수입의 원천이니 절대로 공부를 거르지 마라.

질 문 : 영혼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나?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는 무엇이나?

대 답 : 영혼은 제가 가진 몸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 그는 몸을 무척 사랑해서 그것을 벗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쓴다. 바바가 이르는데, 자녀들아, 그것들은 더럽고 타모프라단한 몸이다. 이제 너희는 새 몸을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오래된 몸에 대한 애착을 떼어내라. 제 몸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가지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목표다.

질 문 : 너희의 계획들을 실제 형태로 옮기기 위해서 너희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대 답 : 변화의 힘이다. 너희가 변화의 힘을 갖지 못하는 한, 너희는 결정을 구체적인 형태로 실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장소와 모든 단계에서 너희는 제 스스로나 또는 봉사에서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Blessing: 아이와 주인이 되는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너희의 노력과 봉사에서 한결같은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이며 무한한 유산의 주인이라는 도취감을 항상 가져라. 그러나 뭔가 조언을 해줘야 할 때나 계획을 세워야 할 때,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는 주인으로서 그 일을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나 도구 영혼들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는 아이가 되어라. 자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와 조언을 따르는 자가 될 때를 아는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노력과 봉사 양쪽 모두에서 성공할 것이다.

Slogan: 도구가 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과 지각을 신에게 바쳐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